DAOL 다올투자증권

Market Weekly

check ME up!

Macro Event

2026년 11월 2주차

리서치본부 투자전략팀

조병현 투자전략 | bhcho@daolfn.com

홍록은 투자전략 RA | hongre@daolfn.com



Ⅰ. Weekly Review *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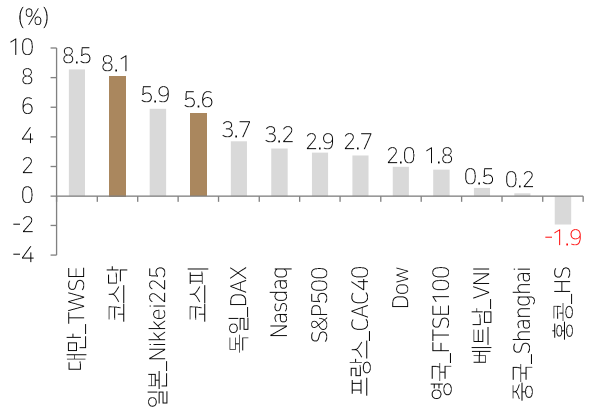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3p*

Ⅲ.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4p*

Ⅳ. Key Chart & 핵심지표 *5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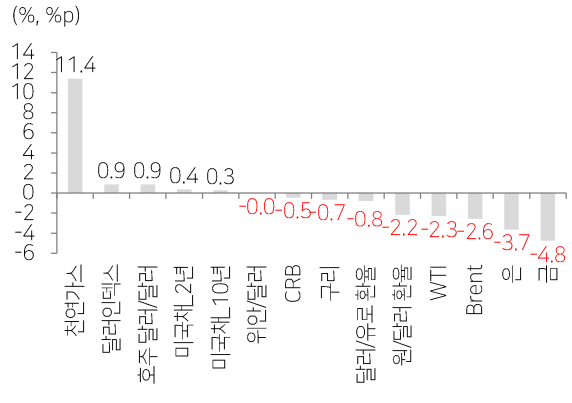
I . Weekly Review

글로벌 증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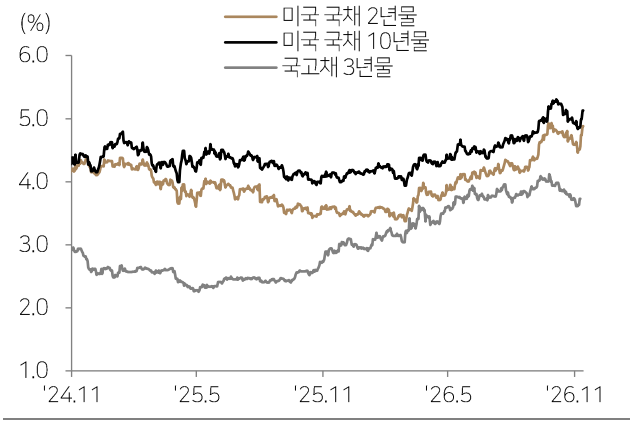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6일 대비 11/12일 종가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FICC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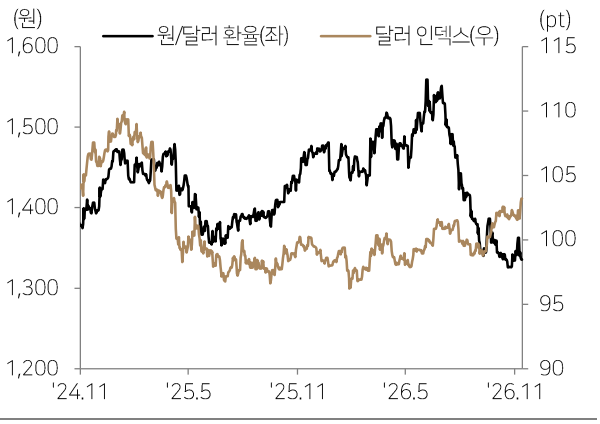
Note: 수익률은 11/6일 대비 11/12일 종가 기준. 미국 국채는 %p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채권 수익률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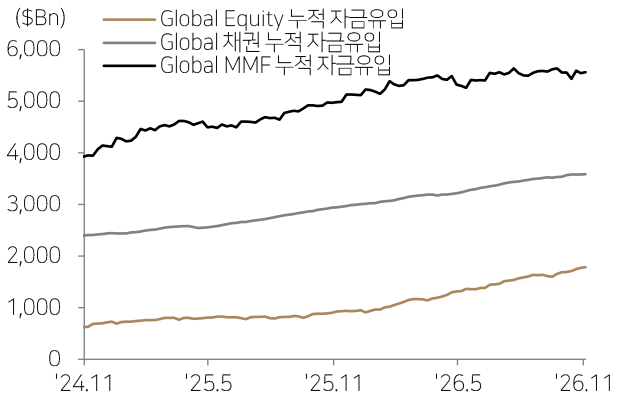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다올투자증권

달러 인덱스 및 원/달러 환율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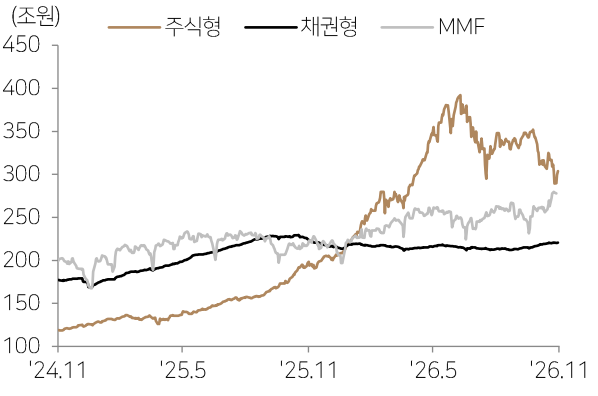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글로벌 펀드 플로우



Source: Refinitiv, 다올투자증권

국내 자금동향



Source: Check Expert,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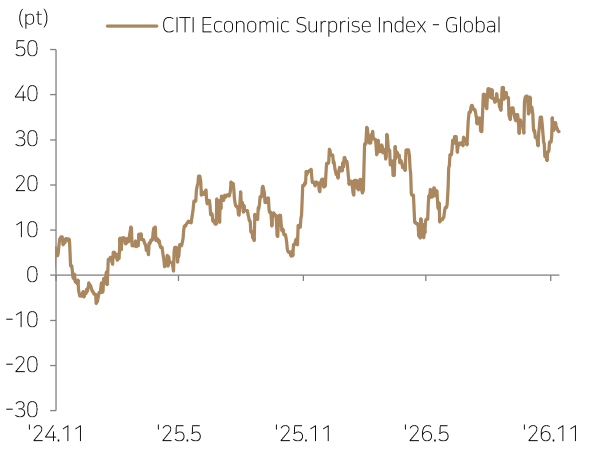
Ⅱ. 경제지표 Preview

- 10월 소비자물가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다시 상기시키는 소재로 작용한 만큼 여타 물가지수들의 움직임에도 주의할 필요. 미국의 수입물가지수의 상방 압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지가 일단 중요해 보이며, 미국 외에 유로존과 일본 역시 추가 인상 여부 및 속도에 대한 경계심이 남아있는 만큼 물가 압력 상향 시 부담이 생길 여지가 있음
- 미국의 고용과 임금 지표가 월초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만큼 소매판매도 관심 가질 필요가 있음. 단기적인 소비 동향이 정책을 좌우하진 않겠으나, 지난달도 예상외의 강세를 보였던 만큼 호조가 이어진다면 금리 추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자극될 여지가 있음

일자	국가/지역	일정 및 이벤트	단위	예상치	이전치
2026-11-16	일본	3분기(잠정) GDP	%qoq	0.2	1.4
2026-11-16	중국	10월 광공업생산	%yoy	5.3	5.5
2026-11-16	미국	11월 뉴욕 제조업지수	Index	19.0	25.5
2026-11-17	미국	10월(잠정) 소매판매	%mom	0.2	0.8
2026-11-17	미국	10월 수출/입물가지수	%mom	-	2.2/1.1
2026-11-17	미국	10월 광공업생산	%mom	0.1	0.7
2026-11-18	유로존	10월(최종) 소비자물가지수	%yoy	-	4.0
2026-11-18	미국	10월 주택착공건수	천건	1240	1221
2026-11-20	한국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	7.7
2026-11-20	일본	10월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mom	-	2.1
2026-11-20	미국	10월 선행지수	%mom	0.0	0.0
2026-11-21	미국	11월(최종)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Index	53.3	51.0
2026-11-21	미국	11월(최종) 미시간대 1년/5~10년 기대인플레	%	-	4.3/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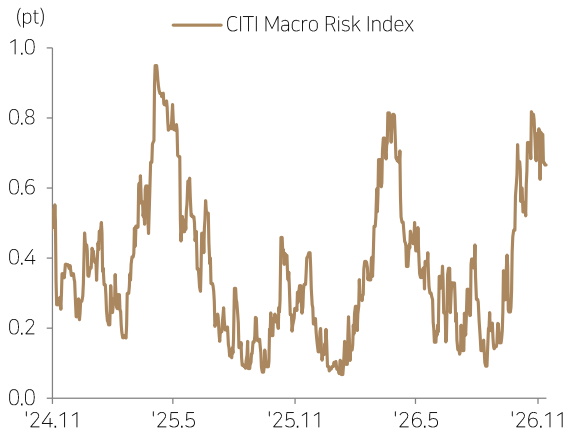
Note: 경제지표 발표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경제 서프라이즈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흐름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III. 이벤트 일정 & 증시 동향 및 전망

일자	국가/지역	중요도	일정 및 이벤트	내용
11/17	미국	상	엔비디아 실적	▪ 컨센서스는 매출 1,091억 달러, 영업이익 719억달러, EPS 2.52달러, 매출총이익률 74%로 형성되어 있음. 반도체 업황 우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진 만큼,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과 베라 루빈의 매출 기여가 중요할 전망 ▪ 최근 젠슨 황 CEO의 사생활 논란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실적 발표를 통해 상승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반도체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주환원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지 등에 주목
11/18 ~19	중국	상	APEC 정상회의	▪ 시진핑 주석이 직접 발표한 2026년 개최지는 중국 선전, 주요 관전 포인트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관세 갈등. 앞서 9월 24일 시 주석의 워싱턴 국빈방문에서 1차 정상회담이 성사되며 무역 휴전 2개월 연장 에 합의한 바 있음
11/19	미국	상	앤트로픽 상장	▪ 지난 10일 로드쇼에 돌입한 앤트로픽이 19일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예정. 앤트로픽의 공모 희망 가격은 주당 70~85달러이며, 공모 규모는 8억 2,500만주. 공모가 상단 적용 시 기업가치는 1.4조달러.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에서 매각 예정 주식 수를 상회하는 매수 의향을 확인한 바 있음 ▪ 순환투자 구조의 약한 고리로 지목된 민간 AI 기업의 공개시장 대규모 자본 조달을 확인하는 시험대. 동시에 향후 AI 산업 전반의 투자심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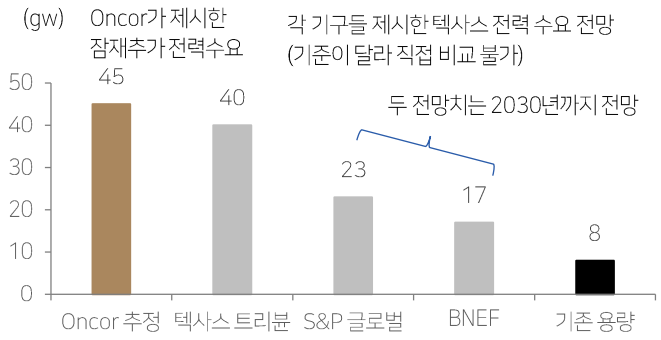
Note: 이벤트 발표일정은 한국 시간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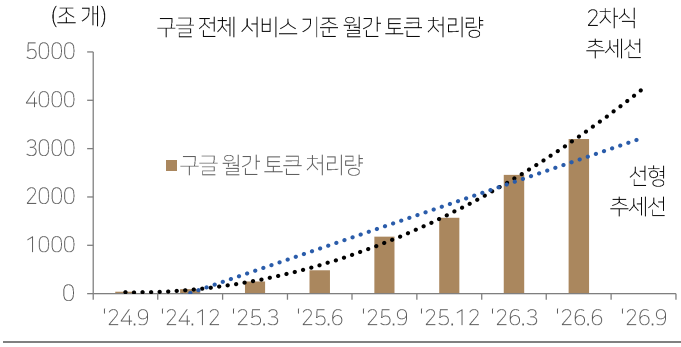
일자	내용
금주 (11/06~11/12) 증시 동향	▪ KOSPI(5.6%), KOSDAQ(8.1%) 상승. KOSPI는 반도체(+10.5%), 기계(+9.2%), 건설,건축관련(+5.9%)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매(유통)(-5.5%), 필수소비재(-5.5%), 증권(-4.6%) 업종 하락. 국내증시는 낙폭 과대 인식 속 반등을 시도. 주중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자 양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기도 함. 코어위브, 앤트로픽 호재가 투자심리 개선한 가운데, 코스닥은 정부 부양책 기대가 겹치며 큰 폭의 상승을 보임. 주 후반 젠슨 황 해임 리스크를 소화하며 상승폭 일부 반납하며 마감 ▪ DOW(2.0%), S&P500(2.9%), NASDAQ(3.2%) 상승. 미 증시는 저가 매수세 유입과 중동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 출발. 주중 10월 CPI가 예상치 상회하고 연준 인사들의 빅스텝 시사 등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며 긴축 경계 형성. 그럼에도 코어위브 호실적, 앤트로픽 IPO 기대감 등 AI 투자심리 회복하며 기술주 중심 상승. 주 후반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사임과 유가 급등에 상승분 일부 반납
차주 (11/16~11/20) 증시 전망	▪ 일시적으로 5,000pt를 하회했던 KOSPI가 일단 하단은 확인한 모습. 물가와 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유입됐고, 반도체 이익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 두었던 상태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시켰다고 해도, 3배 대의 지수 PER 수준은 분명 저평가 영역으로 보임. 문제는 상방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줄 재료가 부족하다는 점 ▪ 수급 측면에서는 이미 채권과의 Trade-off가 형성되는 모습인 만큼 매수세의 탄력과 지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고, AI와 반도체의 수익성 장기 지속에 대한 시장 신뢰가 회복된다고 단언할 근거가 부족. 물론 극심한 저평가 영역에서 다음 주 앤트로픽의 IPO 이벤트가 상장 이후 단기 AI 투자 심리 회복의 재료로 작용하게 될 여지는 존재. 하지만 12월 초 텍사스 주정부의 감사 보고서 확인 이슈가 있고, 8~9일 FOMC가 예정되어 있어 변동성 우려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 적어도 해당 이벤트 확인 후에 적극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Note: 수익률은 전주 금요일 종가 대비 금주 목요일 종가 기준
Source: 다올투자증권

Ⅳ. Key Chart & 핵심지표

12월 초, 텍사스 전력망 감사 결과는 현재 전망 중 실수요를 걸러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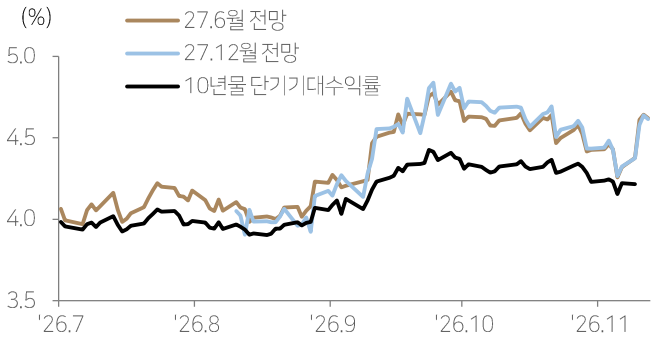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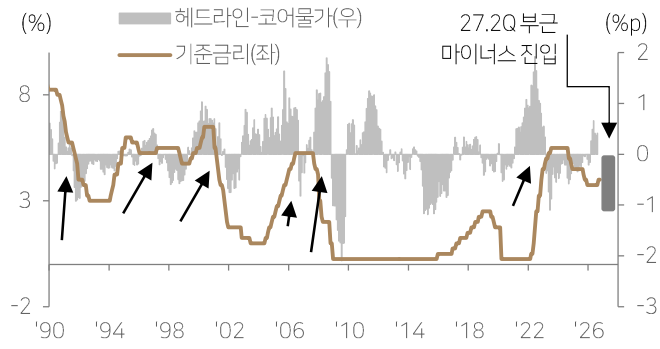


Source: 언론보도 취합, 구글 공개자료, 다올투자증권

- 텍사스는 미국 계획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30%를 차지. 8월 그렉 애벗 주지사의 지시로 PUCT와 ERCOT이 전력망 연결 신청 사업의 자격과 추진 가능성 감사 착수. 전력/용수 수요, 지역사회 영향, 사업 준비도 등을 확인 중. 결과는 12/10일까지 발표 예정
- 상단 그림은 텍사스의 데이터센터 수요 전망과 전력망 연결 신청 규모 사이 간극이 크다는 것을 나타냄 (기준이 달라 수치를 직접 비교는 불가) 여타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 텍사스 감사 결과는 신청된 계획 가운데 실수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계기
- 결과는 두 방향으로 작용 가능. ①허수 물량이 걸러지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 용량이 빠져 현재 AIDC 수요 전망 총량을 하향시킬 수 있고, ② 허수를 걸러낸 뒤 실질적 프로젝트 실수요가 충분함을 보여줄 수 있음. 실제로 최근 구글의 토큰 사용량이 초선형 형태로 증가하고 있어 연산 능력 수요증가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유효해 보임. 관련주들의 밸류에이션매력은 제고된 상황이나, 12월 초 해당 이벤트는 눈여겨 볼 필요

물가와 연준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으로 금리 불안감이 형성. 그러나 기존 상단을 높일 수준은 아닐 듯





Source: Bloomberg, 다올투자증권

- 10월 물가 서프라이즈와 월러 이사의 50bp인상 가능성 발언 이후 금리 불안이 재차 형성되고 있음.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경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미국채 10년물 등락도 5% 부근으로 높아진 상황
- 그러나 (선물)시장에 형성되는 기준금리 전망은 지난 10월초 4.75%까지 높아졌던 전망만큼 상향되진 않았고, 10년물 국채의 단기 기대수익률도 해당 고점 이상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 중
- 현 시점 물가 부담을 무시할 순 없지만, 내년 3월 이후 헤드라인 물가는 지금보다 낮은 영역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반면 코어는 이후에도 한동안 높은 영역에 머물 수 있고, 이 때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
- 그러나 유사한 사례에서 연준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혹은 리스크 확산으로 인해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1년 이내 인하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경우가 많았음. 최근 금리 측면에서 불안 요인이 추가된 사실이나 아직은 연준의 최종금리 전망까지 바꿀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

www.daolfn.com

본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본사영업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60. 여의도 포스트타워 27층

DAOL 다올투자증권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조사분석 담당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나, 제공되는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당사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사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투자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분쟁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배포, 복제, 인용, 변형할 수 없습니다.